황금연휴 '풍선나라' 곡성으로 오세요

다음달 4일부터 3일간 기차마을서 '기차마을 대탐험' 특별행사

풍선아트·마술쇼·버블쇼·뮤지컬 공연 등 잊지못할 추억 선사

"5월 황금연휴 '풍선나라' 곡성으로 오세요."

곡성군이 어린이날 황금연휴를 맞아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에서 '기차마을 대탐험! Hi Fun Balloon Festival' 주제로 특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화려한 풍선 장식으로 꾸며진 섬진강기차마을이 마치 동화 속 나라처럼 변신하여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형형색색의 풍선 장식과 캐릭터 모양 풍선 조형물은 아이들의 동심을 자극하며 설렘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3일간 중앙무대 앞에서는 마술쇼, 버블쇼, 풍선아트로 이루어진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하이라이트는 5월 5일 어린이날 중앙무대에서의 다채로운 공연이다.

오후 4시에 진행되는 '디즈니 캐릭터 OST 콘서트'는 아이들이 사랑하는 디즈니 명곡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다. '인어공주'의 'Under the Sea'부터 '겨울왕국'의 'Let It Go'까지, 디즈니 명곡들은 어린이뿐 아니라 부모님들에게도 향수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안데르센의 명작동화 뮤지컬 '벌거벗은 임금님'도 선보인다.

전문 아동극단의 화려한 의상과 세트, 유쾌한 노래와 춤으로 꾸며진 이 공연은 아이들에게 교훈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명작동화 뮤지컬 공연은 매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된다.

그 외에도 '일루전 매직', '비스타&싸군의 어린이 인기 콘텐츠 공연',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는 '랜덤 플레이 댄스'도 어린이에게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중앙무대 옆 잔디광장에서는 3일간 '이동식 천문대' '애완 새 체험', '물풍선 미니 오징어 게임', '어린이 목공예' 등 7개의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함께 운영된다.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으로는 '애완 새 체험'이 있다. 애완 앵무새 5품종과 직접 교감하는 시간으로, 전문 조련사의 지도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새를 손에 올려보고 먹이를 주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어린이 목공예 체험'은 아이들이 나만의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다. 전문 목공 강사의 지도와 함께 안전한 도구를 사용하여 진행되며, 원하는 다양한 소품들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도 펼쳐진다. '인기 캐릭터 퍼레이드'는 곡성 기차마을의 캐릭터인 도깨비 홍이와 청이 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캐릭터 분장을 한 배우들이 행진하며 아이들과 인사하고 사진을 찍는다. 'SNS 인증샷' 이벤트와 '보물찾기'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기차마을 곳곳을 관람하며 지정된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행사장 곳곳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면 소정의 기념품 선물을 제공받는 즐거운 이벤트이다.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입장료는 어린이 4천500원, 성인 5000원이다. 단, 5월 5일 어린이날 당일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는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곡성=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광양시 보건소, 재난응급의료 대응 강화 교육

광양시가 지난 24일 재난 및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 교육'은 지난 2023년 전남 최초로 보건소 주관으로 시작해 올해로 3년째 시행되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광양시 보건소장 이하 신속대응반 40명과 광양소방서 소속 3명이 참여했으며, 성가롤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DMAT), 국립중앙의료원 전남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순천소방서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1명이 강사진으로 나섰다.

이날 오전에는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이론 교육이 진행됐고, 오후에는 가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실전 도상훈련이 이어졌다. 특히 도상훈련은 유관기관 합동 훈련 방식으로 진행돼 실제 재난 상황에서 협력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광양시 보건소 신속대응반은 재난 발생 시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요청에 따라 출동해 소방서 및 권역응급의료센터(DMAT)와 긴밀히 협력하며 사상자 분류, 응급처치, 병원이송, 자원관리, 언론브리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보성군, 전 세대 진드기 기피제 배부…감염병 예방 선제 대응

고령층 예방 수칙 안내도 병행

보성군이 진드기 기피제를 전세대에 배부하며 감염병 예방 선제 대응에 나섰다. 진드기 예방 교육 모습.

보성군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 세대를 대상으로 진드기 기피제를 배부하고, 본격적인 진드기 활동 시기에 선제 대응에 나섰다.

군은 진드기 유충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4월 말부터 6월까지의 봄철을 앞두고, 감염병 확산의 주요 시점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모든 세대에 기피제를 배부 완료했다.

특히 농촌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사용법과 감염병 예방 수칙에 대한 안내도 병행했다.

기피제는 각 읍면 보건지소를 통해 직접 배부됐으며, 이를 통해 군민 누구나 손쉽게 기피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진드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치명적인 감염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봄철부터 가을까지 활동이 왕성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농작업, 등산, 벌초 등 야외활동 시 피부 노출 최소화, 기피제 사용, 작업 후 즉시 샤워하기 등의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보성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전 세대 기피제 배부는 진드기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야외활동이 많은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기피제를 적극 활용하고, 고인 풀밭 등에 장시간 앉지 않는 등 예방 수칙을 꼭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성군은 앞으로도 계절별 감염병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역물품 배부 및 교육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고흥군 '새꿈도시'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

76571㎡ 부지에 100세대 규모

고흥군 '새꿈도시' 조감도.

고흥군의 '새꿈도시 조성사업'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새꿈도시'는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인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금산면 석정리 총 76571㎡의 부지에 100세대 규모의 단독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부지 등이 계획돼 있다. 대상지는 도양읍과 인접해 있어 우수한 정주 여건과 함께 생활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시행 주체인 '유한회사 고흥독일마을'은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사전 계약 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새꿈도시'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흥군은 이번 사전 계약이 예비 입주자들과의 실질적인 계약 체결로 이어져, 사업 추진에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꿈도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흥군청 종합민원실 건축관리팀(061-830-5184) 또는 유한회사 고흥독일마을(1600-2102)로 하면 된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가정의 달 5월 순천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순천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순천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순천사랑상품권은 지역 식당, 마트, 시장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현재 등록된 가맹점은 총 13,800개소다. 가맹점 목록은 '지역상품권 chak' 앱 및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은 농협은행, 순천농협, 축협, 원협, 낙협 등 5개 은행 47개 지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모바일형은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충전이 가능하다. 개인별 구매 한도는 지류형과 모바일형을 합산해 월 최대 50만원까지며 지류는 최대 30만원까지 구입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통해 모두에게 따뜻한 가정의 달이 되길 바라며, 이번 기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구례군의회, '담배소송 지지 건의안' 채택

구례군의회가 지난 28일 개최된 제319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지지를 위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담배 제조사가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 결함을 인정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과 다양한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 ▲보건복지부 및 관계 기관이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장길선 구례군의회 의장은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담배 제조사는 제조물 책임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